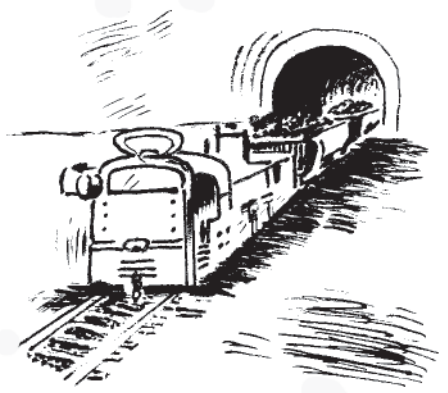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홍 남 수

조춘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춘남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서두르는 기색없이 방안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나서 입을 열었다.

《우리 기업소가 앞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자면 청년갱, 램전갱, 2갱을 무조건 문바위골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에 갱을 옮길 수 있겠는지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읍시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청년갱, 램전갱, 2갱은 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갱들보다 더 많은 로력과 자재, 설비들을 집중했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석탄생산량은 가물에 물줄듯 줄어들었다. 수십년전에 건설한 그 갱들은 이제 자기 사명을 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춘남은 생산조건이 유리하고 전망성이 있는 문바위골로 갱들을 옮길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 갱건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켰다. 이제 며칠 후면 갱건설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기업소의 행정참모일꾼들이 모여앉았던 것이다. 사실상 그 일은 기업소의 전망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다시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고난 춘남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제 더이상 그 갱들을 붙들고 씨름할수는 없

습니다. 난 세갱을 단번에 옮기자는겁니다.》

방안은 바람맞은 호수마냥 술렁거렸다. 세갱을 단번에 옮기자는 춘남의 말이 사람들의 고막을 친 것이다.

《지배인동무, 제 생각에는 조건이 제일 불리한 청년갱을 먼저 옮기고 나머지 갱들은 차차 봐가면서 옮겼으면 합니다.》

춘남은 언짢은듯 량미간을 모았다. 허나 그것은 그의 습관이였다. 그는 주먹을 입술에 꼭 눌러뒀다.

한개 갱에 소속되어있는 설비와 자재들을 옮기자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기사장은 그것으로 하여 어떤 다른 일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있는것이다.

춘남은 목가짐을 흐트리며 저력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껏 기업소는 새 갱을 몇개 건설하고도 남은 자재와 로력으로 그 갱들을 지탱해왔습니다. 미련을 버립시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결심합시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다기차게 울리였다.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춘남은 송수화기를 다른 손에 바꿔쥐며 텅기듯 몸을 일으켰다.

《중지했던 말이지? 알겠소.》 하고 춘남은 말했다.

《기사장동무와 과장동문 이제 나와 고속도굴진

중대로 가봅시다.》

춘남은 서둘러 방을 나섰다.

얼마후 세사람은 고속도로진중대에 도착하였다.

《지배인동지, 절 처벌해주시시오. 이 구간 압질이 무르다는데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중대장을 지켜보며 춘남은 버럭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보오, 압질이 뚫고 이렇게 물기까지 배었는데도 대책하지 않다니... 가까운 곳에 물통이 있는것 같소. 하마트면 큰일날뻔 했소.》

지휘관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목적과 지향은 같아야 하지만 보는 눈은 달라야 한다. 또 땅속의 일은 감각도 필요했다. 그 감각은 오랜 탄부생활을 하는 과정에 얻어진다. 그러나 제대로여온지 두해밖에 안되는 중대장은 무슨 일에서나 전개력과 창발성은 있지만 아직 오랜 탄부들이 지니고있는 그런 체취가 부족했다.

춘남은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서야 현장을 떠났다.

무거운 피로가 온몸을 휘감았다. 가끔 발을 헛디디며 갱밖으로 걸어나오던 춘남은 청년갱입구에서 기사장을 만났다. 기사장은 그를 기다리고있는 듯 이렇게 말했다.

《지배인동무, 아무래도 세갱을 한꺼번에 옮기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고개를 수그리고 앞서 걸음을 옮기는 춘남의 생각은 한층 무거웠다. 현재 고속도로진중대가 굴진을 맡은 구역에는 질이 좋은 탄이 수천톤 매장되어 있었다. 거기만 타고왔으면 기업소는 무탈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다.

조춘남이 세갱을 단번에 옮길 결심을 한것도 바로 그 탄밭을 믿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무른 압질이 나오다니. 그러지 않아도 갱을 옮기는 일을 설뚱하게 대하던 기사장의 마음을 든장질한듯 싫었다. 기사장은 남달리 기술실무가 높고 갱안물제도 밝았지만 일에서 전개력이 부족했다.

기업소일꾼들은 물론 사람들속에서 부족점이 나타나날 때면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성격인 춘남은 기사장을 완벽한 일꾼으로 키우려고 원심을 쓰고있느터였다. 그는 지배인과 기사장은 기업소의 두 기둥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이 두 기둥의 키는 꼭 같아야 한다. 만약 어느 한 기둥의 키가 작으면 기업소라는 큰집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수 있다.

기사장은 혼자소리마냥 말을 이었다.

《지금껏 많은 품을 들여 기업소의 생산을 자기 궤도에 올려세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배인동무가 기업소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기사장동문 마치 내가 혼자서 애쓴것처럼 말하

누만. 우리 기업소가 제구실을 하게 된건 온 기업소사람들이 힘을 합쳐 일했기때문이에요.》

춘남이 램전탄광 지배인으로 온것은 몇년전이었다. 그때 기업소는 힘들게 유지되고있었다. 기업소의 실태를 료해하고난 춘남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량합기업소적으로 램전탄광이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심한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기억속에 있던 기업소가 이렇게 된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다.

탄광의 실태를 료해하던 춘남은 어느날 자기도 모르게 탄광에 온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춘남은 대학시절 수재로 손꼽히던 학생이었다.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있던 대학에서는 그를 교단에 세우려고 교원으로 추천하였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일생 탄부로 살 결심을 하고 대학을 떠났다. 대학동창생들은 몹시 섭섭해하며 그의 생각을 돌려보려고까지 하였다.

《춘남동문 왜 부디 탄광으로 가려고 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동무들은 내 마음을 잘 알지 않나.

우리가 피타게 지식을 습득한것은 그 지식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강성국가건설에 필요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조춘남의 말에 모두가 대답을 못하였다....

조춘남은 그날을 되새겨보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가 지배인으로 일하게 된 램전탄광은 뿌리가 깊은 탄광이었다. 1930년대부터 일제놈들은 이곳에 기여들어와 석탄을 캐내며 제놈들의 나라로 실어가 군수산업에 리용하였다. 지금도 그놈들이 남겨놓은 오소리굴같은 갱들과 여기저기 파헤친 로천갱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탄광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러한 탄광을 어떻게 하면 자기 궤도에 올려세울것인가.

춘남은 우선 기업소일꾼들이 자기의 직능을 잘 알게 하는데 모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일꾼들이 자기가 맡고있는 직능을 수박겉핥기식으로 안다면 기업소에 큰 공백이 생기고 종당에는 만회할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수수방관할수 없는 일이었다.

춘남의 머리속에는 하얀 종이장에 선을 긋듯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명백히 떠올랐다. 그는 큰소리없이 흐트러진 기업소일을 바로잡아나갔다. 대체로 사색이 빈곤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모든것을 큰소리로 대신할 때가 많았지만 춘남의 경우는 달랐다. 얼굴에 강기가 느껴지는 그의 사색은

중심이 깊었고 폭이 넓었다. 무슨 일이든 일단 손에 잡으면 매듭을 짓기 전에는 중도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최근년간 기업소일꾼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기업소의 모든 일이 편파성없이 진행될수 있게 된것은 춘남의 남모르는 사색과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춘남은 아직 기업소에 메꾸어야 할 공백이 많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 공백을 메꾸자면 춘남의 사색은 중심이 더 깊어야 했고 사색의 폭도 더 넓어야 했다. 춘남은 그것을 자각하고있었다.

얼마후 사무실에 들어서던 춘남은 얼굴이 확 밝아졌다.

중키에 턱이 각진 40대의 후방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꾸벅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춘남은 재빨리 걸어가 그의 손을 잡아쥐었다.

《수고했소. 설비를 가져왔소?》

《예, 가져왔습니다.》

몇달전부터 영양제식당에서는 탄부들에게 영양제식사의외에도 빵을 만들어 공급하고있었다. 지금은 증기빵만 만들고있었다. 춘남은 어떻게 해서라도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빵을 만들어 공급하려고 머리를 쓰고있었다. 요즘에는 빵가공기술을 서술한 책도 보면서 연구를 하고있었다.

《지배인동지, 우리 도에 있는 기계공장에서 만든겁니다. 빵굽는 설비가 정말 괜찮습니다.》

《좋구만. 우리 사람들이 만든거라니 더 좋소.》

춘남은 무뎠 기뻐했다.

《그럼 제 설치까지 말아하겠습니다.》

《그래주오. 탄부들의 후방사업은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후방사업은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소. 기업소가 더욱 생산을 높이자면 후방사업이 든든히 안받침되어야 하오. 먹은 소가 힘을 쓴다는 말도 있지 않소.》

《지배인동지, 제 이제부터 탄부들을 위해 더 힘껏 뛰겠습니다.》

춘남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비꼰다.

《고맙소. 자, 오늘은 함께 퇴근하지요.》

그들은 탄광마을아래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깡을 옮기는 문제는 어떻게 토론되었습니까?》

후방과장은 비로소 생각난듯 물었다. 춘남은 입을 꼭 다문채 침묵을 지켰다. 사실 오늘 협의회는 활력없이 진행되였다. 춘남이 두달동안에 깡을 옮길 결심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 사람들은 놀랐고 이어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니, 기업소가 그럴 힘이 있거나 한가? 하는 표정들이었다.

춘남이 역시 쉽게 내린 결심이 아니었다. 지금껏

그렇게 큰일을 계획하고 실행해본적이 없었던것이 다. 하지만 지체하면 할수록 그만큼 기업소는 뒤떨어질것이며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질것이다. 그런 기업소가 어디에 필요한가? 우리 기업소가 침체되면 나라에 하나의 공백이 생길것이며 당에서 구상하는 강성국가건설이 그만큼 떠질것이다. 또 기업소종업원들의 생활도 석탄생산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춘남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새롭게 깨닫는것이 있었다. 무슨 일이든 구체적인 설계와 결심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사람들의 정신력을 분발시켜 기업소와 운명을 함께 하게 하는것이였다. 그때만이 기업소를 당에서 바라고 구상하는 높은 봉우리에 올려 세울수 있다고 춘남은 생각하였다.

춘남은 고속도굴진중대에 로력을 더 보충할 생각을 하며 긴숨을 내쉬였다.

×

두사람이 운반깡을 따라 걸어나오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춘남이와 운반깡장 리수영이였다.

《이보라구 지배인, 난 매번 이 운반깡을 두고 생각이 많네. 우리가 레루맷뎀을 하지 않았다면 어쩔번 했나.》

임자가 완강하게 내민 덕에 그 덕을 톡톡히 보네.》

《아바이두 참, 그게 어디 나 혼자 한 일입니까. 아바이랑 기업소사람들이 힘을 합쳐 한 일인데... 깡을 옮긴 후에 채 못한 레루뎀을 마저 해야지요?》

《합세. 내 이번엔 전번처럼 임자 속을 썩이지 않겠네. 허허.》

람전탄광은 다른 탄광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막장에서부터 저탄장까지의 운반길이 깡으로 되어있었던것이다. 이를테면 온 탄광이 통채로 깡속에 들어가있다고 해야 할는지... 람전역가 사이에 있는 저탄장에 나가야 전차와 탄차를 볼수 있었고 탄광맛을 느낄수 있었다.

춘남이 지배인사업을 시작하여 처음 일을 크게 벌린것은 운반깡의 레루맷뎀이였다.

춘남은 그 일을 운반깡장 리수영이한테 맡기였다.

하지만 수영은 처음부터 손을 들고 나앉았다.

《공원한 수고네. 뎀을 해서 사람이 걸어나다니다면 또 몰라도...》

《깡장아바이, 레루맷뎀은 기술적으로 안받침되어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명백한 답을 찾았는데 왜 주저합니까?》

춘남은 수영이와 단둘이 있을 때는 그를 깡장아

바이라고 부르곤 하였다. 수영은 춘남의 아버지가 년로보장을 받고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막장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한 가까운 사이였다. 춘남이가 지배인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수영이를 찾아와 이렇게 부탁했었다.

《이보게 수영이, 자넨 우리 춘남이보다 된장독을 더 축내지 않았다. 우리 애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도와주게. 노동자가문에서 지배인이 나오는게 어디 쉽나.》

수영은 그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이렇게 말했다.

《나도 레루뎀을 하면 좋은줄 왜 모르겠나. 하지만 난 자네가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여놓는건 반대네. 그러지 않아도 젊은 지배인이 기업소를 이끌고 가겠는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네. 얼마동안은 마음을 푹 가라앉히고있게.》

부지중 춘남은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처음 지배인사업을 인계받았을 때 생각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난생처음 지금껏 몰랐던 걱정을 느꼈다. 그러나 수영이와 같은 량심적이며 성실한 탄부들이 곁에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고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그런데...

《갱장아바이, 절더러 보신을 하라는겁니까? 전래일 당장 지배인을 그만두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자넨 역시 젊었어. 언젠가 다른 탄광에서도 레루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더군. 레루뎀을 하지 않았다고 탄차가 굴러가지 않겠나. 운반은 내가 맡겠으니 너무 마음쓰지 말게.》

갱을 빠져나와 저탄장쪽으로 가는 탄차를 잠시 쳐다보던 춘남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갱장아바이, 레루뎀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갱장아바이가 말입니다.》

《음—》

레루뎀을 하면 우선 운반속도가 빨라지고 탄차베어링도 많이 절약할수 있었다. 탄차가 페루이음 짬을 넘어가면서 베어링에 받는 충격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수영은 자기의 말이 춘남이한테는 전혀 이가 들지 않는 객적은 소리로부터 안된다는것을 느꼈다. 수영은 지배인이 준 과업을 집행할수밖에 없었다. 처음 한구간의 레루뎀을 뎀해놓고 시험을 해보았다. 열흘쯤 지나자 뎀한 부위가 떨어져나가기 시작했다. 일이 이쯤 되자 사람들속에서 아까운 용접봉과 시간만 허비했다고 구구한 말들이 오갔다. 수영은 이제 그 일을 더 벌여놓았다가는 춘남이한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것 같은 위구심으로 하여 불안스러운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로반을 돌아보고 밤늦게 나오던 수영은 한자리에 굳어졌다. 누구인가 저쪽에서 봉봉 용접을 하고있었던 것이다. 눈여겨보니 레루뎀을 하고있었다. 이 밤중에 누구가? 용접을 하던 사람이 인기척을 느낀 듯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춘남이었다. 수영은 굳 입을 쩍 다시었다.

《잘 안되는군요. 눈에는 익고 손에는 설다더니.》 하며 춘남은 빙그레 웃었다.

《괜한 고집을 세우면서...》

수영은 제잡담 춘남의 손에서 용접면을 빼앗듯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몇분동안 봉봉 지저뎀다. 그가 용접을 다 끝내자 춘남은 함마로 뎀한 부위를 팡팡 때려보았다. 그리고나서 좀전처럼 빙그레 웃었다.

《역시 갱장아바이는 솜씨가 있군요.》

수영은 한밤중에까지 나와 제 손으로 용접을 하는 춘남을 보자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레루우에 영치를 불히고있을 춘남은 수영이한테 담배를 권하며 물었다.

《갱장아바이, 레루뎀 실패를 좀 생각해보았습니까?》

수영은 담배를 몇모금 빨고나서 말했다.

《지배인은 잘 모를거네. 사실 레루뎀은 오래전에 내가 시작했던거네. 성공을 못했지. 뒤에서 구구한 말들이 많았지. 난 지배인이 내 전철을 밟을가봐 걱정이 돼서 그러네. 뭘 숨기겠나. 나살이나 먹은 나도 뿔뿔한 뉘소리는 듣기 싫네.》

춘남의 두눈에서 진지한 표정이 사라졌다. 얼굴은 어뎀가 침울해보이기가 했다. 지금 마주앉아있는 수영이는 지금껏 자기가 알고있던 운반갱장이 아니라 전혀 판사람처럼 느껴졌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정신도 쇠약해질가? 수영은 기업소에 흔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는 기업소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공인되어있었다.

춘남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지금은 나사못 하나라도 절약할수 있다면 힘을 바쳐야 할 때입니다. 그때만이 우리 기업소도 빨리 일어설수 있습니다. 인차 과학원에서 연구사가 내려옵니다.》

연구사가 내려오면 다시 시작해봅시다.》

수영이의 머리우로 푸르스름한 담배연기가 그물 그물 솟아올랐다.

그후 레루뎀은 성공하여 오늘까지도 끄떡없이 오가는 탄차들을 떠받들고있었다.

지금 두사람은 그때일을 추억해본 것이었다.

오늘 춘남은 수영이와 이야기를 하고싶어 운반갱으로 왔다. 춘남은 어제 협의회때 수영이의 눈치를 많이 살피었다. 행정참모성원들중에서 제일 좌상이고 누구보다도 탄광의 실패를 잘 알고있는 수영

이한테서만은 뭉쳤던 속이 썩 내려갈 씨원한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다. 지금껏 지배인 사업을 해오면서 춘남은 남모르게 수영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 수영은 자기대로 춘남을 위해 원심을 썼고 그가 하는 일은 쌍수를 들어 찬성하곤 했다. 하지만 어제는 입에 빗장을 지른듯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춘남은 그것이 이상스러웠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정당하다고 해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겐 뭔가 빈구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몰라도 객관은 정확히 본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하여 운반경으로 발길을 옮긴 춘남이었다.

수영은 춘남이의 속마음을 알고있는듯 제 먼저 이렇게 말했다.

《갱을 문바위골로 옮기면 한 20년은 끄떡없이 탄을 깔걸세. 지배인이 큰 용단을 내렸어. 이젠 기업소가 정말 마음이 놓이네. 그게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는데.》

《갱장아바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두달동안에 갱을 옮길것 같습니까? 어제 밤에는 잠이 오지 않더군요.》

《옮기지 않구.》

춘남은 자기도 모르게 큰숨을 내쉬었다. 비록 긴 대답은 아니었지만 춘남이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힘을 느끼게 한 것이었다.

잠시 혼자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던 수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갱이나 옮기고나서 집에 들어갈가 하네.》

《예? 정말 들어가겠습니까?》

춘남은 무춤 멈춰서며 재빨리 물었다.

《이젠 나이가 있지 않나.》

그들은 갱밖으로 나왔다.

수영은 벌써 그 말을 두번째로 했다. 얼마전에 운반경의 현대화문제를 놓고 수영이와 토론이 있었다. 현대화에서 기본은 운반경에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석탄운반에서 걸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다.

춘남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난 수영은 이렇게 말했다.

《지배인동무, 늙은 소가 힘을 얼마나 쓰겠소. 생각은 뻔한데 힘이 가닿아야 말이지... 난 년로보장을 받을가 하네.》

《갱장아바이, 제 성화를 받기 싫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합시다. 갱장아바이가 감시체계를 완성하면 제가 나서서 수속을 해주겠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허.》

수영은 허거르게 웃었다.

그날은 무심히 흘러보냈지만 오늘 또 그 말을 들

자 춘남은 생각이 무거웠다. 아바이가 정말 나이 때문에 그럴가? 그럴수도 있었다. 허나 다른 원인도 있을 것이다.

춘남은 그 원인을 알고싶어 물었다.

《갱장아바이,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정말 일이 몸에 부치면 들어가십시오. 저한테는 아바이를 더 붙잡을 권한이 없습니다. 로동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껏 아바이를 붙잡고있었던 것은 제 욕심때문이었습니다. 갱장아바이가 곁에서 제 마음에 안착을 주고 어떤 편 열, 백사람을 대신해주곤 하였습니다. 전 아바이를 오늘뿐 아니라 매일에도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수영은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의 얼굴이 어느때 없이 한층더 늙어보였다.

《고마우이, 그렇게 믿어주어.》

수영은 다른 말은 더 하지 않았다. 춘남은 그가 별로 괴로와하는것 같아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서야 춘남은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다. 한것은 로동과장이 수영이한테 이제는 들어갈 나이도 지났는데 빨리 년로보장수속을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춘남은 불끈 솟구치는 흥분을 누르며 전화로 로동과장을 불렀다. 춘남은 로동과장이 방으로 들어오자 지그시 그를 쳐다보다가 책상모서리를 짝 잡아쥐며 물었다.

《동무가 운반경장을 보고 년로보장수속을 하라고 말했소?》

《예.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춘남은 움쭉 몸을 일으켰다.

《나이라구? 그래 동무는 그의 나이만 생각하고 기업소를 위해 자기를 다 바치려는 마음은 보지 못하오? 그가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넘었다고 동무나 우리 기업소에 짐이 된적이 있소? 어디 대답해보오.》

《그런건 없지만 로동법이...》

춘남은 부지불식간 책상을 탕 내리쳤다. 로동과장은 흠칫 어깨를 떨며 춘남을 마주보았지만 이내 눈길을 떨구었다.

《과장동무의 속이 그렇게 시꺼먼줄은 몰랐구만. 눈감고 아웅하지 마오. 그래 동무는 제 조카를 위해 운반경장을 희생시킬 속심이 없었다는거요? 너절하오.》

로동과장은 손을 올려 이마의 땀을 닦았다. 춘남의 말은 사실이였다. 로동과장의 조카가 운반경에서 일했다. 현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갱장한테서 비판을 여러번 받았다.

로동과장은 조카를 무턱대고 두둔하며 운반경장을 희생시킬 생각을 했던 것이다. 로동과장은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실행시키려던 일을 지배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놀랍기만 했다.

춘남은 저력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운반경장은 램전탄광에 태를 묻은 사람ियो. 동무나 나나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지난 그가 어째서 아직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하오.》

로동과장은 이마의 땀을 또 닦았다.

춘남은 창가로 다가가 고개를 젓히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스라니 높이 솟은 하늘로 두줄로 가지를 치고 길게 늘어선 기러기떼가 서로 쾌활하게 부르고 화답하며 날음을 재촉하고있었다. 기러기떼의 구성진 울음소리가 파란 공간에 가득 울려 퍼지고있었다.

《말 못하는 날새들도 저렇게 마음과 힘을 합쳐 먼길을 가고있구나.》

×

춘남은 안전등으로 갱안을 살펴보고 고속도굴진 중대로 가고있었다. 고속도굴진 중대는 전투를 벌여 며칠동안에 안전대책을 세우고 오늘부터 다시 굴진을 시작하였다.

춘남은 막장으로 들어갈 때 급한 일이 아니면 빨리 걸지 않았다. 갱안을 눈여겨살피며 잘못된 등발을 바로세우기도 하고 위험개소도 찾아내어 퇴치하곤 하였다. 그는 갱안에 들어가있기를 좋아했다. 누구한테서 말을 듣지 않아도 어느 갱 채탄장에는 등발이 몇대 필요하며 어느 지점까지 굴진하면 탄을 캐낼수 있다는 등 기업소의 모든 갱일을 손금보듯 알고있었다. 춘남은 무슨 일에서나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지배인사업을 갖 시작했을 때였다. 어느 날 기업소운수직장을 돌아보고난 그는 운전사대렬 점검을 자기가 직접 하였다. 그때 기업소에는 제대로 굴러다니는 운수기체가 몇대 없었다. 기업소의 형편이 어려워 자체로 필요한 부속품을 보장하지 못하는데다가 운전사들의 잘못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춘남은 대렬점검에 운전사 안해들도 참가시켰다.

운전사들이 안해들앞에서 차를 망탕 관리한 자책을 받게 하자는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안해들도 남편의 차에 관심을 돌리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의 의도는 맞아떨어졌다.

대렬점검이 있는 후 운전사의 안해들은 경쟁적으로 차를 쓸고 닦고 했다. 운전사들도 차를 되는데로 관리하던 습성을 버리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사람들속에서 이런 말이 오

갔다.

《하나의 돌로 두마리의 새를 잡는것이 어떤것인가 했는데 이제 두고보라구. 지배인은 앞으로 돌 하나를 던져 세마리의 새를 잡지 않나.》...

춘남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발밑의 침목이 놀랐던것이다. 그가 침목이 놀지 않게 고정시키고 허리를 펴는데 일꾼들이 갱안쪽에서 걸어나왔다.

《지배인동지, 오늘부터 고속도굴진중대는 착암기 석대가 동시에 가동합니다. 막 사기들이 나서 그렇습니다. 한주일전에 굴진을 끝낼것 같습니다.》

한 일꾼이 묻지도 않는 말을 했다.

며칠전 고속도굴진중대의 압축기를 돌아보던 춘남은 바람방향을 잘 조절하면 착암기 한대를 더 걸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피뚝 스쳐 공기배관의 위치를 변경시켜주었던것이다. 굴진을 한주일전에 끝내면 계획했던 날자보다 5일을 앞당길수 있었다. 춘남은 앞당긴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적어도 몇개의 채탄장을 더 전개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면 열흘후에는 마음놓고 갱을 옮길수 있었다. 춘남은 전번에 끝맺지 못한 협의회를 다시 열어야겠다고 혼자생각을 하며 얼굴이 길쭉한 기술발전과의 일군을 바라보았다.

《과장동무, 로동자들의 기술학습은 어떻게 조직할 생각이요?》

《아직 구체적인 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과업을 준지가 언제인데... 오늘중으로 세워야겠소. 이제 총화를 하겠지만 정보실과 기술발전과는 성과가 적소. 기술혁신이자 기업소가 앞으로 빨리 전진할수 있는 지름길ियो.》

춘남은 항상 기술자들의 두뇌에서 산생되는 지식의 기쁨방울은 기업소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힘으로 보고있었다. 전차전동기개조, 운반갱의 실시간감시체계도입, 레우맷땀 등 석탄생산에 이바지한 크고작은 일들은 기술의 힘이 낳은 결과였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고속도굴진중대가 찾아가는 탄밭도 기업소기술자들이 새롭게 개조한 탐사설비로 찾아낸것이였다. 그 탄밭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탄광을 옮기는 문제도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춘남은 앞으로 기술혁신을 몇몇 기술자들한테만 국한시키지 않고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넓힐 결심이었다.

사건을 따라 내려가던 춘남은 갱안의 공기가 좋지 않음을 느꼈다.

《통풍갱을 빨리 판통시켜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속 말을 한 춘남이가 굴진중대에 도착하니 중대원들은 한창 발파준비를 하며 활기편 이야기를 주고받고있었다.

《중대장동지, 갱을 언제 문바위골로 옮길니

까?)》

《우리가 굴진을 끝내면 옹기오. 우린 이달전으로 무조건 굴진을 끝내야 하오.》

《그럼 명줄을 걸어야 하겠군요.》

《이 친구 언제 그런 말을 다 배웠어.》

춘남은 느닷없이 그들의 말이 가슴에 마쳐왔다.

《명줄을 걸어야 한단 말이지. 이들처럼 각오를 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춘남의 결심은 이렇게 굳어져갔다.

드디어 문바위골로 갱이 옮겨갔다. 긴장한 하루 하루가 흘러갔다. 기업소전체가 풍선처럼 팽팽해져 살짝 건드려도 터질듯싶었다.

춘남의 시선은 어느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부단히 움직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교차되며 벌어지는 모든 일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시야에서 놓치면 안되었다.

그는 지금 압축기를 옮기는 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권양기시동! 방향주의!》

갱안을 울리는 웨침소리, 쉿쉿 쇠바줄이 떨리는

소리, 압축기가 사갱에서 한메터한메터 올라왔다. 쇠바줄은 더욱 팽팽해지며 푸들푸들 떨었다. 한메터한메터... 일각이 천추처럼 느껴졌다.

바로 이때 누구인가가 다급하게 웨치였다.

《쇠바줄이 끊어진다. 권양기를 세우라!》

한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졌다. 쇠바줄은 점점 풀리였다. 이제 몇 초후면...

한사람이 동발목을 안고 위험천만한 곳으로 뛰어들었다.

《지배인동지—》

어느새 사람들이 춘남의 뒤를 따라섰다. 동발목을 하나씩 들고 압축기를 버티고 서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의 군상을 방불케 했다.

두달후 청년갱, 램전갱, 2갱은 문바위골로 완전히 옮겨졌다. 기업소에서는 그동안의 일을 총화했다.

그날 춘남이와 함께 퇴근길에 오른 기사장은 생 각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배인동무, 오늘 난 사람들의 정신력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